

지역 소식통

김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
2024년 첫 정기회의 시작

김제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조기심, 송영애)가 17일 2024년 첫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활기차게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3년도에 추진했던 10개의 특화사업(△백일 축하떡 지원, △새해 영양밥 나눔, △초중고 입학생 학습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이·미용 봉사, △효도꾸러미 지원, △중복맞이 북(福)드림, △지역아동센터 물놀이 지원, △가을맞이 김치나눔, △사랑의 감장나눔에 대한 결과 보고 및 자체 평가를 통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2024년 신규사업의 경우, 일회성 지원에 편중됐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이 다양한 연령대에 사업을 추진했던 점은 최대한 살려, △노인 우울증·치매 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월예,공예,요리,레크리에이션 등)과 △과내 복지관 및 시설과 연계한 지역협력형 사업을 추진하여 검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조기심 민간위원장은 "2024년 검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속가능성'으로 정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만경읍, 경로당 순회방문

김제시 만경읍(김창환) 행정복지센터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난 10일부터 관내 경로당 28개소를 찾아가며 소통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 방문은 만경읍 문화센터 경로당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실시했으며 28개 경로당을 순회, 새해인사와 지역 현안 및 애로사항 등을 직접 경청하고 어르신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순회방문에서 한 어르신은 "경로당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들어주니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창환 만경읍장은 "추운 겨울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자주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소통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새로운 김제 성공시대 개막 신호탄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축하 기념행사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전라북도특별자치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김제의 성공시대개막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김제시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기념하는 기념행사를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해 이원택 국회의원, 김영자 김제시의회의장과 시의원, 시민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제시립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축하 릴레이 응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축하 시민 플래시몹 공연,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128년간 사용되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며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으로 전북만

이 가진 강점과 장점을 특화시켜 더 새롭고 더 특별한 새로운 전북의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8만 김제시민과 함께 축하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새로운 김제 성공시대 개막의 신호탄이 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에서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출범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만족도 92.3%

시민 10명 중 9명, 김제사랑상품권 사용에 '만족'

김제시민 92.3%가 김제사랑상품권 사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주간 고향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이유를 10% 할인구매로 가게 경제에 도움(89.1%), △주요 사용 분야는 음식점(81.4%)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만족도는 △상품권 사용에 만족(92.3%) △고향사랑상품권 이용에 만족(89%)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81%)의 결과가 나왔으며 개선 의견으로는 △모바일페이 도입 등 결제방식 다양화 △스페이백 이벤트 확대 요청 등이다.

지난해 김제사랑상품권은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처럼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 김제사랑상품권은 사용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가게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용자의 의견은 향후 상품권 정책에 반영해 김제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2024년 갑진년(甲辰年) 신년하례회 개최

김제시 모악회(회장 정성주)가 2024년 새해 시민의 안녕과 김제의 발전을 염원하며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17일 신년하례회에는 정성주 김제시장과 이원택 국회의원, 김영자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지역 도의원 및 시의원, 기업인, 언론인, 기관·사회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시민의 안녕과 김제의 발전을 염원하고자 마련된 신년하례회에서 참석자들은 새해 소원성취를 위한 축하 떡을 자르며 김제시가 전북 4대 도시로 우뚝서기를 기원했다.

이날 각 기관·사회단체장들과 기업인들은 2024년 한 해의 변명과 건승을 기원하는 덕담과 인사를 건네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2024년 새해는 민선 8기 2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새로운 전환점을 도는 해로, 한마음 한



김제시 모악회가 2024년 새해 시민의 안녕과 김제의 발전을 염원하며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뜻으로 김제를 위한 소중한 의견을 결집해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며, "참석하신 시민 모두의 격려와 응

원 속에, 김제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이 원광보건대학교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사업단과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완주군-원광보건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 맞손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사업단과 업무협약 체결

완주군이 원광보건대학교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사업단(단장 주은주)과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운영 △교육 인프라 및 인적자원 교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서 첨단 디지

탈기기(VR, AR 등) 15대를 관내 초·중·고등학교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주은주 단장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미래 인재 양성에 필수적인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지역 내 첨단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디지털 신기술 교육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를 통해 더 나은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 가축분뇨 처리장 찾아

기초환경시설 인근 지역 마을연금제도 활성화 당부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이 또다시 축산분뇨처리장을 방문했다.

17일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유의식 의원과 완주군 윤당호 환경위생과장·송용환 환경관리팀장, 가축분뇨처리장 관계자 등 10여 명은 이날 삼례읍 소재 축산분뇨처리장을 찾아 처리장 내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을 점검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최근 증설된 시설물과 사무실 등에 추가로 설치될 태양광 발전시설 신설 계획 등을 논의했다.

축산분뇨처리장 내에 증설 예정인 태양광 발전시설은 환경기초시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마을에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계획됐으며, 해당 마을에 보상 체계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 마을 연금을 도입한 사례다.

유의식 의원은 지난 8대 의정활동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환경기초시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

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고심했으며, 그 결과 마을자치연금제도 도입을 적극 건의해 왔다.

유의식 의원은 "이번 마을자치연금을 통해 지급 방식과 정산 방안 등을 마을자치규약 표준 모델로 삼아,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며, "안정적인 원주형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축산분뇨처리장이 우수사례로 완주군 관내에 다양한 환경기초시설 피해지역에 지원책의 대안화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의식 의원은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사업비를 조성하기 위해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된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 발의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